



금감원, 보험 및 여·수신 관련 제도 개선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함.

- 보험소비자 및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 제공,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 인하, 갱신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, 대리운전자 사고 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 폐지,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조회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함.
- 저소득층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보험 사업을 확대하고, 보험금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공지를 강화하는 등 보험보장 확대 방안을 추진함.
-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막기 위하여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고령자 여행보험 상품개발을 추진하며,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원보증보험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임.

■ 한편, 금감원은 금융기관 여·수신 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,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및 합리적인 금융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.

- 대출 금리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대출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 및 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, 예금담보 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연체이자 폐지,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이 포함됨.
- 또한,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 개선, 대출이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 강화, 대출계약 시 금리 결정 변동요인 설명 강화,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시 이자 지급방법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됨.
- 카드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카드상품별 실제 적용금리 분포 비교공시 강화와 리볼빙서비스 평균금리 비교공시 신설이 있음.

(보험관련 제도개선 등, 금감원, 9/8)